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수준과 대인관계 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향수¹, 이성훈^{2*}, 정용훈²

¹건국대학교 인문사회융합대학 교수, ²고려대학교 경제통계학부 교수

A Study on the Digital Informatization Level and Human Relationship Satisfaction Level of Disabled Persons

Hyangsoo Lee¹, Seong-Hoon Lee^{2*}, Yonghun Jung²

¹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Konkuk University, Professor

²Dept. of Economics, Korea University, Professor

요약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집단의 디지털정보화수준과 대인관계 만족도 수준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수준은 스마트 접근, 스마트 역량, 스마트 활용에 있어서의 수준을 말한다. 장애인 표본 추출을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등록된 만7~69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실태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에 의한 연 1회 면접 조사로 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회귀분석은 SAS 9.3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디지털접근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만족도 수준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역량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만족도 수준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활용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대인관계 만족도 수준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디지털 정보화수준이 높아지면, 장애인들의 대인관계에서의 만족도 수준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디지털정보화 소외집단인 장애인 계층에 대한 정부의 디지털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세심한 관심 및 정책적 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들을 포함한 정보소외계층의 보편적 서비스 확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단위의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가 정보소외계층을 포용하는 문화형성 역시 중요하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 역시 중요하다.

주제어 : 장애인, 대인관계 만족도, 디지털 접근, 디지털 역량, 디지털 활용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level of digital informatization and the level of human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the disabled group. The digital informatization level of the disabled refers to the level of smart access, smart capability, and smart utilization. For the sampling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persons aged 7 to 69 who were registered under the Welf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Regression analysis utilized SAS 9.3.s through vitalization of local communities, and information education for the disabled is also important.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higher the digital access level of the disabled, the higher the level of interpersonal satisfaction. Second, the higher the digital information capability level of the disabled, the higher the level of interpersonal satisfaction. Third, the higher the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 of the disabled, the higher the level of interpersonal satisfaction. As a result, the higher the digital information level of the disabled, the higher the satisfaction level i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the disabled.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careful attention and policy review are needed to resolve the digital information gap of the government for the disabled who are marginalized group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expansion of universal services of the marginalized groups including the disabled.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form a culture in which the community embraces the marginalized class through vitalization of local communities, and information education for the disabled is also important.

Key Words : Disabled, Human Relationship Satisfaction, Digital Access, Digital Capability, Digital Application

*This paper was supported by Konkuk University in 2019

*Corresponding Author : Seong-Hoon Lee(leeseonghoon@korea.ac.kr)

Received February 7, 2020

Revised March 3, 2020

Accepted March 20, 2020

Published March 28, 2020

1. 서론

대인관계란 인간관계를 말한다[1]. 인간관계는 둘 이상의 사람이 만들어내는 개인적이면서도 정서적인 관계를 말한다. 이렇듯 둘 이상의 사람 간의 정서적인 관계는 기존에 알던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뿐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도 포함한다[2,3].

물론 인간관계는 직장생활에서 생성될 수도 있으며, 비공식적인 모임에서도 가능하다. 또한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도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다 [5-7]. 최근에는 인간관계에 있어 오프라인에서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사람 간에 관계 맺기가 활발해지고 있다[8-10]. 세대에 따라서는 온라인에서의 대인관계를 더 중시하기도 한다[11-13]. 그렇다면 과연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이 우리들이 대인관계를 새롭게 맺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더구나 오프라인 대면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라면 대인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 있어 디지털정보화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다 [12]. 특히 장애인의 장애유형이나 정도에 따라서도 디지털정보화 정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2], 특히 인터넷 접속이나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에 따라서도 장애인들의 정보화 활동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2-4].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수준과 대인관계 만족도 수준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로 출발하였다. 디지털역량정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만족도가 높을 것인가?, 디지털접근정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만족도가 높을 것인가?, 디지털활용정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만족도가 높을 것인가? 등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수준이 대인관계 만족도 수준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2017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과 대인관계 만족도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 장애인들의 디지털정보 접근, 디지털 정보 활용, 디지털정보역량 등 디지털 정보화 수준에 따라 대인관계 만족도 수준도 달라진다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전략이나 정책에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보소외계층 중 하나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정보격차해소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우선, 디지털정보격차지수에 대한 문헌을 살펴보고,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데이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장애인들의 디지털정보화수준과 대인관계 만족도 수준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끝으로 장애인들의 디지털정보화수준과 대인관계 간의 회귀 분석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디지털정보화 수준

디지털 정보격차지수란 일반국민을 기준으로 그들의 디지털 정보화수준을 표준으로 하여 정보소외계층과의 상대적인 디지털정보격차를 지수화한 것이다.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수준이 100이라고 할 때 정보소외계층(장노년층,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의 디지털정보화수준을 측정하고 일반국민과의 차이를 계산한 것이다[2].

구체적으로 디지털정보격차지수란 모바일 등 유무선 융합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일반국민 대비 정보소외계층의 활용, 접근, 역량 수준을 총합적으로 산출한 점수이다. 따라서 디지털정보격차지수는 스마트 접근(20%), 스마트 역량(40%), 스마트 활용(40%)에 있어서의 격차의 합계를 말한다.

디지털정보접근지수는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여부(50%)와 인터넷 상시 접속가능 여부(50%) 등의 합이며, 디지털정보역량지수는 PC 이용능력(50%)과 모바일기기 이용능력(50%)의 합이다. 또한 디지털정보활용지수는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40%)와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40%) 및 인터넷 심화 활용정도(20%)의 합이다[2].

2.2 디지털정보화수준과 대인관계 만족도

디지털 정보격차지수를 산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일반국민들과 비교할 때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접근측면, 역량측면, 활용측면에서 측정 분석하여 과연 이들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어떠한지 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디지털 정보격차정책을 도출하기 위함에 있다[7].

2004년부터 장애인의 정보격차지수를 측정하기 시작했는데, 농어민이나 저소득계층과 비교하여서도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이 더 낮았었다[2]. 디지털정보격차지수는 2016년부터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동안 PC위주의 정보화 수준을 측정하던 데서 유무선환경의 디지털환경하에서의 정보격차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정보화수준이 좀더 깊어지고

질적, 양적인 면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디지털 환경하에서 정보격차지수도 변화를 할 수 밖에 없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정보화격차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Table 1 참고), 정보소외계층 중에서도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다. 2016년 기준으로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전체 국민 디지털정보화 수준의 65% 수준이다.

Table 1. Digital information level of the underprivileged compared to the whole nation

	2014	2015	2016
Disabled	60	62	65
Farmers & Fishermen	51	55	61
Senior	42	45	54
average	50	52	59

따라서 장애인은 온라인에서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낮음으로 인해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의 대인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된다[12].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대인관계 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14]. 이는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디지털정보화 수준과 대인관계 만족도 수준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3.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수준과 대인관계 만족도와의 분석하고자 하며, 2017년의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결과를 근거로 장애인집단의 디지털정보격차지수와 대인관계 만족도 수준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디지털정보격차수준과 대인관계 만족도 수준과의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에서 장애인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등록된 만7세-69세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2]. 실태조사는 최종 조사 대상자를 무작위로 추출 후 가구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위해 조사 방문시 사회복지사와 동행하여 도움을 받았다. 또한 전문가의 조사지원을 받았으며, 모든 장애인에 대해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무기명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설문은 구조화된 설문에 의한 면접조사로 하였

으며, 조사주기는 연 1회로 진행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회귀분석은 SAS 9.3을 활용하였다.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수준과 대인관계 만족도 수준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역량지수, 디지털 접근지수, 디지털활용지수 및 디지털종합지수 항목과 대인관계 만족도 수준과 관련된 설문항목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인관계 만족도는 1점에서 4점 수준까지의 척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Table 2에서 측정문항 및 척도를 제시하였다.

Table 2. Human relationship satisfaction survey items

item	Not satisfied at all	Not very satisfied	Somewhat satisfied	Very satisfie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maintaining relationships with people you know and meeting new people)	1	2	3	4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200)

Variable	Category	Frequency	%
Gender	Male	1467	66.7
	Female	773	33.3
Education	Elementary	456	20.7
	Middle school	571	26.0
	High school	958	43.5
	Undergraduate	215	9.8
Disability Type	Retardation	1440	65.5
	Brain lesion	262	11.9
	Blindness	269	12.2
	Hearing/language disorder	229	10.4

데이터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장애인 전체 설문 대상 2200명 중 남성이 66.7%를 차지하고 있고, 학력 측면에서는 고졸이 4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장애 유형으로는 지체장애가 65.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Table 4. Basic statistics (N=2200)

Variable	Average	Std.
Digital access index	86.5	20.0
Digital competence index	37.6	37.7
Digital utilization index	40.0	27.0
Digital composite index	48.4	26.7
Human relationship satisfaction level	2.7	0.7

기초통계량을 보면, 장애인의 디지털접근지수의 평균이 86.5점(100점 만점)으로 가장 높고, 장애인의 대인관계 만족도 평균은 2.7점(4점 만점)수준이다.

4. 장애인 디지털정보화 수준과 대인관계 만족도 수준과의 단순회귀 분석결과

이하에서는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수준과 대인관계 만족도 수준과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인의 경우 2017년 자료를 근거로 하여 디지털접근지수와 대인관계 만족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Fig. 1과 같이 두 변수간의 분포도 관계는 양(+)으로 나타났고 단순회귀 추정 결과 디지털접근지수가 10 증가할 때 마다 대인 관계 만족수준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t 값 9.469) 0.07단위(1.75%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계수 값이 통계적으로는 매우 유의하나 작게 나온 것은 종속변수인 장애인의 대인관계 만족도는 1점에서 4점 수준의 척도인 반면 독립변수인 디지털정보화수준은 최고가 100점이기 때문이다. 대인관계 만족도 수준을 디지털정보화지수 수준과 동일한 100점 척도로 하여 추정하면 현재의 계수 값에 약 25배를 곱한 값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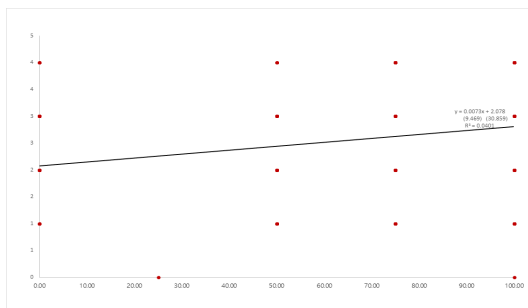


Fig. 1. Distribution and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digital access index of the disabled people and the human relationship satisfaction level(t-values are in parentheses)

장애인의 경우 2017년 자료를 근거로 하여 디지털역량지수와 대인관계 만족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Fig. 2와 같이 두 변수간의 분포도 관계는 양(+)으로 나타났고 단순회귀 추정 결과 디지털역량지수가 10 증가할 때 마다 대인 관계 만족수준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t 값 13.042) 0.05단위(1.25%p)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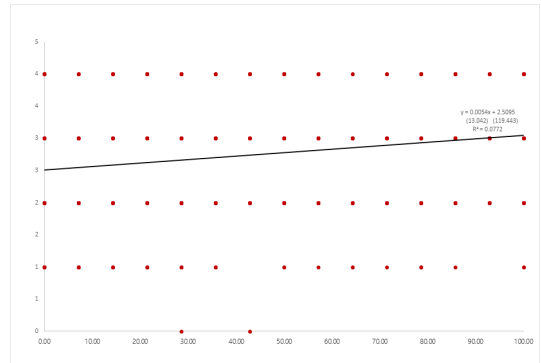


Fig. 2. Distribution and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digital competence index of the disabled people and the human relationship satisfaction level(t-values are in parentheses)

장애인의 2017년 자료를 근거로 하여 디지털활동지수와 대인관계 만족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Fig. 3과 같이, 두 변수간의 분포도 관계는 양(+)으로 나타났고 단순회귀 추정 결과 디지털활동지수가 10 증가할 때 마다 대인 관계 만족수준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t 값 16.118) 0.09단위(2.25%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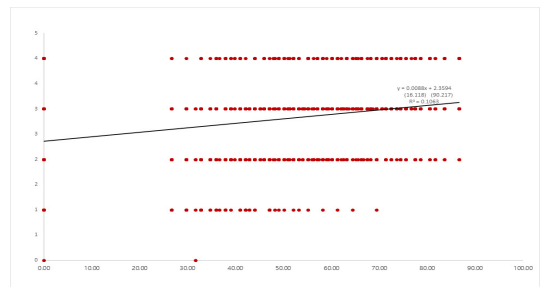


Fig. 3. Distribution and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digital utilization Index and disabled people and the human relationship(t-values are in parentheses)

또한 장애인의 2017년 자료를 근거로 하여 디지털종합지수와 대인관계 만족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Fig. 4와 같이 두 변수간의 분포도 관계는 양(+)으로 나타났고 단순회귀 추정 결과 디지털종합지수가 10 증가할 때 마다 대인 관계 만족수준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t 값 15.782) 0.08단위(2%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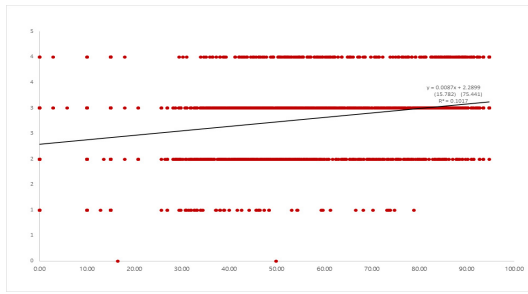


Fig. 4. Distribution and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digital composite index of the disabled people and the human relationship(t-values are in parentheses)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집단의 디지털정보화수준과 대인관계 만족도 수준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수준이 대인관계 만족도 수준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들의 디지털 정보화수준이 높아지면, 장애인들의 대인관계에서의 만족도 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디지털정보화수준이 낮다면 장애인들의 대인관계 만족도 수준도 낮아진다는 것을 뜻하다. 따라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디지털 정보격차해소 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장애인들의 디지털정보화 수준과 대인관계 만족도 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분석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디지털접근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만족도 수준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역량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만족도 수준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활용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대인관계 만족도 수준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수준과 대인관계 만족도 간에는 영향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장애인 계층에 대한 정부의 디지털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세심한 관심 및 정책적 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디지털활용과 대인관계 만족도 수준간의 회귀계수가 가장 높았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디지털활용 수준을 높이면 대인관계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이며, 이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8-10].

사실 그동안 장애인들을 비롯하여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정보격차해소 노력이 있어왔지만 디지털환경으로 변하면서 디지털정보격차는 감소되지 않고 더욱더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장애인들을 포함하여 정보소외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디지털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접근하고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보편적 서비스 확대로 전략방향을 삼아야 할 것이다.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정보격차예산 및 투자, 그리고 이와 연계된 교육 및 제도적 지원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15]. 그동안 저소득층이나 노령층에 비해 장애인들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은 다소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14]. 따라서 다른 소외집단과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장애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입안 및 실행이 중요하다.

둘째, 장애인들의 디지털정보격차해소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의 노력도 중요하나 민간영역에서의 다양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가 정보소외계층을 포용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다행히 최근 정부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정부혁신에 있어서도 중요한 아젠다가 되었다. 사회적 가치를 함축할 수 있는 공동체문화를 통해 경제소외계층 뿐 아니라 정보소외계층을 사회구성원으로 포용하는 다양한 노력이 민간영역에서도 일어나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부문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으리라 본다.

셋째,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환경변화를 대처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교육이나 스마트 기기의 지원 등에 대한 정책 역시 중요하다[16].

본 연구를 통해 장애인들의 디지털 정보화수준과 대인관계 만족도 수준이 직접적인 영향관계에 있음을 밝혀냈으며, 본 연구 결과가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디지털정보격차 정책수립에 공헌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저소득계층, 농어민, 북한이탈주민 등의 정보소외계층의 디지털 정보화수준과 대인관계 만족도간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해보는 것도 후속연구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REFERENCES

[1] H. J. Park. (2016). *The Study on the Moderating Effect of Regulatory Focus on Tourism Social Commerce: Focused on the Relationship among Customer Value, Satisfaction and Continuous Use Inten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3), 143-150.
DOI: 10.14400/JDC.2016.14.3.143

[2]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 NIA. (2017). *The Report on the Digital Divide*.

[3] H. S. Lee & S. H. Lee.(2018). *A Study on Digital Divide of Farmers and Fisherme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 13-20.
DOI: 10.14400/JDC. 2018.16.1.013

[4] H. K. Nam-Gung, I. H. Kim & H. R. Chun. (2017). *Study on the Correlates of Digital Disparity among Older Seoul Resi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4), 73-81.
DOI : 10.14400/JDC.2017.15.4.73

[5] I. K. Jeon & J. H. Chung. (2015). *Study of GUI design convergence guideline for the users of aged gener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7), 323-331.
DOI : 10.14400/JDC.2015.13.7.323.

[6] S. Y. Lee & M. J. Cheong. (2014). *A Study on 'Platform' e-Government for Reducing the digital divide in a Multicultural Society of S.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 1-12.
DOI : 10.14400/JDPM.2014.12.1.1.

[7] W. K. Kim & K. T. Hwang. (2017).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and Directions of Bus Information System based on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0), 63-81.
DOI : 10.14400/JDC.2017.15.10.63

[8] S. Y. Pi & S. J. Do. (2017). *The Effectiveness of the Flipped Learning using the Smart Devi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4), 65-71.
DOI : 10.14400/JDC.2017.15.4.65

[9] Y. S. Cho, J. R. Woo & K. S. Noh. (2017). *Application Profile for Multi-Cultural Content Based on KS X 7006 Metadata for Learning Resourc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4), 91-105.
DOI : 10.14400/JDC.2017.15.4.91

[10] S. Choi. (2016). *Study on ICT standardization unify North and South Korea- North Korea open Internet induction pla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4), 79-88.
DOI : 10.14400/JDC.2016.14.4.79

[11] K. S. Noh & S. H. Park. (2013). *Measures for e-Learning Policy Effectiveness Improvement through Analysis of Maturity of Korean Policy Applic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12), 11-19.
DOI : 10.14400/JDPM.2013.11.12.11

[12] Korea Consumer Agency. (2017). *A Study on the Promotion of Consumer Rights of the Information Vulnerable Class*.

[13] J. K. Kang & J. Y. Lee. (2015). *Status and Tasks of ICT-based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1), 67-76.
DOI : 10.14400/JDC.2015.13.1.67

[14] J. I. Ahn & Y. K. Seo. (2014). *An Analysis of Sub-factors of Digital Media Literacy Divide: Focusing on the effects of generation and economic status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2), 69-78.
DOI : 10.14400/JDC.2014.12.2.69

[15] S. Choi. (2016). *Study on ICT standardization unify North and South Korea- North Korea open Internet induction pla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4), 79-88.
DOI : 10.14400/JDC.2016.14.4.79

[16] K. S. Noh & S. H. Park. (2013). *Measures for e-Learning Policy Effectiveness Improvement through Analysis of Maturity of Korean Policy Application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12), 11-19.
DOI : 10.14400/JDPM.2013.11.12.11

이 향 수(Hyangsoo Lee) [종신회원]



- 199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사)
- 199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석사)
- 2004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건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행정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지식관리, 정보화정책, 전자정부, 정책분석평가

이 성 훈(Seong-Hoon Lee) [종신회원]



- 1990년 2월 : 고려대학교 영문학과(문학사)
- 1993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석사)
- 2002년 9월 :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2011년 3월 ~ 2016년 2월 : 청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
- 2016년 3월 ~ 현재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지식자본, 생산성, 산업조직

정 용 훈(Yonghun Jung) [정회원]



- 2000년 2월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사)
- 2002년 2월 :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제학석사)
- 2010년 1월 : 뉴욕주립대 대학원 (경제학박사)
- 2013년 3월 ~ 2018년 2월 :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 2018년 3월 ~ 현재 : 고려대학교 경제통계학부 교수
- 관심분야 : 국제경제, 생산성, 산업조직
- E-Mail : yjung45@korea.ac.kr